

청소년 성소수자(LGB)의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이규연** · 한영경*** · 배성민****

Ⅰ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에 더하여 사회적 소수자로서 부딪히게 되는 사회적 가치 및 압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긴장(Strain)'을 겪기 쉽다. 이런 긴장은 자살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2006)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사고 비율은 10%인데 반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47.4%로 약 5배가 높았다. 본 연구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여 '자살의 긴장이론(STS)'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긴장과 자살사고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한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에 의해 연결되거나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사회적 통합 수준의 개념이 확대된 '사회적 자본'이 이런 부정적 경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긴장과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로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15세에서 23세의 청소년 성소수자 3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심리적 긴장에서 오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사고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효과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전략과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 이 논문은 이규연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 단국대학교 임상심리학과, 석사
- *** 서울심리지원 동북센터 팀장,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겸임교수, losrorien@hanmail.net
-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spirit73@hanmail.net

투 고 일 / 2024. 11. 26.
 심 사 일 / 2025. 2. 12.
 심사완료일 / 2025. 2. 18.

Ⅰ 초록

청소년 성소수자는 자아 정체감 형성이라는 이 시기의 발달과업에 더하여 사회적 소수자로서 사회적 가치와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청소년 성소수자(LGB)의 심리적 어려움에 주목하여 이들의 '긴장(Strain)'과 자살사고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자주 인용되고 있는 Zhang(2016)의 '자살의 긴장이론(STS)'을 바탕으로, 한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에 의해 연결되거나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사회적 통합 수준의 개념이 확대된 '사회적 자본'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해 보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연속형/결속형, 온/오프라인으로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는 전국의 만 15세에서 23세의 청소년 성소수자 32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은 자살사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긴장이 자살사고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사고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자살사고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상충되는 가치 긴장,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 상대적 박탈감, 대처능력 부족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결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모두에서, 온라인 형태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오프라인 형태의 경우에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심리적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형태의 자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 결속형 자본이 다양한 유형의 긴장 요인들에 대해서 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와 함께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성소수자(LGB), 긴장(Strain), 자살사고, 사회적 자본

I. 서 론

이성애적 성적 취향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다(Krysiak, 1987).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이성애 중심의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며 심리적 불편감, 슬픔, 두려움,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강병철, 하경희, 2005;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박수진, 2018; 주재홍, 2017).

미국에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들의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를 조사한 결과, 총 41,636명의 청소년 중 이성애 청소년의 자살사고는 9.4%~25.1%, 자살시도는 3.5~9%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사고는 32.5%~40.4%, 자살시도는 15.5%~ 32.7%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Liu, Walsh, Sheehan, Cheek, Carter, 2020). 국내의 경우, 한국 LGBTI(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623명의 응답자 중 45.7%가 자살시도를, 53.3%가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영정, 2014),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살 및 자해 위험성은 미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06년에 진행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강병철, 김지혜, 2006)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전체 청소년 중 자해행위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하여 거의 다섯 배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성애 청소년에 비해 성소수자 청소년이 심리적 어려움 및 자살사고, 자살 시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강병철, 하경희, 2005; 강병철, 김지혜, 2006; 권미영, 2020; Kourany, 1987; Gibson, 1989; Lee, Kim, Woo, Yoon & Choi, 2016; Proctor, 1994; Russell & Joyner, 2001).

한편, 선행연구들을 보면 긴장과 자살 행동 간의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는데(Liu, Zhang, Hennessy, Zhao & Ji, 2019; Song et al., 2019; Zhang, Liu & Sun, 2017; Zhao & Zhang, 2018), 이성애가 규범적인 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긴장은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Mueller, James, Abrutyn & Levin, 2015). 최근 자살 연구에서는 Zhang(2016)의 ‘자살의 긴장이론(The Strain Theory of Suicide; 이하 STS)’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김현정, 황의갑, 2011; 박민영, 2020). 자살의 긴장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살 전에 심리적 긴장이 선행된다고 가정한다. 긴장은 최소 두 가지의 압력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는 인지부조화의 형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긴장은 인지부조화보다 더 심각하게 좌절, 분노 고통을 느끼게 하며, 심각하고 강한 긴장은 정신장애나 자살을 야기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이성애중심주의

(heterosexism)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별을 가진 상대와의 사랑이나 성행동에 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윤가현, 1997). 이러한 사회적 문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은 긴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긴장을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살사고 및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박민영, 2020). Zhang(2016)은 긴장이 자살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심리적 보호 요인이 자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긴장과 자살의 관계에서 사회적 통합, 사회적 규제, 성격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Zhang et al., 2014).

한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에 의해 연결되거나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사회적 통합수준이 높으면 자살할 확률이 낮아지고, 각 개인들을 결합시키는 유대는 그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Durkheim, 1897/2010). 최근에는 사회적 통합의 개념을 확대한 사회적 자본이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우울, 자살사고(Helliwell & Putnam, 2004),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증상을 완화시키고(Putnam, 2000), 소진, 신체적 및 심리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ächter, Savage & Torgler, 2011).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존감,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 및 자살사고 및 자살사고를 억제시킨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청소년은 심리적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유창민, 강상경, 2015; 유창민, 2017; 이지영, 박소라, 나은영, 김은미, 2014; Ferlander, 2007; Langille, Asbridge, Kisely & Rasic, 2011; Yoo, Khang & Kim, 2017; Yoo, 2018).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소셜미디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차별과 낙인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ng, Zhang, Mak & Pang, 2015).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한편,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구, 2010). 청소년 성소수자들 또한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사회적 자본이 결속형과 연결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Putnam, 2000)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 수준, 자살사고,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효과가 있다면, 사회적 자본의 유형(결속형/연결형 및 온/오프라인)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소수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소수자(sexual minority)는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를 아우르는 표현이다(박미란, 2019). 과거에는 동성애자만 성소수자의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성소수자는 LGBTIQI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Questioning)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성소수자를 지칭할 때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외의 성소수자 집단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김진이, 2017; 이호림, 2015; 장지윤, 2016).

그러나 실제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 관점에서의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LGB)와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관점에서의 트랜스젠더(T)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이호림, 2015; Chong, Zhang, Mak & Pang, 2015; King, Semlyen, Tai, Killaspy, Osborn, Popelyuk & Nazareth, 2008). 남궁미, 박정은(2020)이 진행한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00~2019년 사이에 진행된 84편의 연구를 분석했는데,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을 본 연구자들이 재분석한 결과 이 중 약 70%(58편)가 이와 같은 이유로 LGB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성소수자 하위집단 중에서 성적 지향성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동성애와 양성애(LGB)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자살의 긴장 이론

청소년기의 성소수자는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을 겪으면서 동시에 성소수자로서의 성적 지향성을 함께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및 자살과 같은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Elze, 2002; Proctor & Groze, 1994).

Zhang의 자살의 긴장이론(The Strain Theory of Suicide: 이하 'STS')은 자살 행동 이전의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이다. 본 이론에서의 긴장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좌절감에 의해 유발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스트레스가 긴장을 야기하며 해결되지 않은 긴장은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Zhang & Lester, 2008). 긴장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다른데, 스트레스가 심리적 좌절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 고통이라면, 긴장은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하고 위협적인 고통으로, Zhang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에 대한 극단적인 해결방법으로 자살을 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Zhang, 2019).

STS는 긴장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상충되는 가치로부터의 긴장, (2)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 (3)상대적 박탈로 인한 긴장과 (4)위기 상황에서 대처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긴장이 있다(Zhang & Lester, 2008). 이중 '상충되는 가치로부터의 긴장'은 두 가지 사회적 가치 또는 신념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충돌하는 경우 경험하는 긴장으로, 전통주의 집단주의와 현대의 개인주의 가치의 충돌(Zhao & Zhang, 201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가치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당사자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Zhang, 2019). 이런 스트레스가 긴장을 야기하면서 자살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경우에는 이성애 중심주의 문화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소수 문화의 가치 사이의 충돌로 인한 긴장 발생이 자살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은 개인이 가진 목표나 열망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경우 경험하는 긴장을 말한다(Zhang, 2016).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클수록 개인은 강한 부담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담이 자살을 야기할 수 있다(Zhang, 2019).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경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열망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긴장을 경험하고 이것이 또한 자살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박탈로 인한 긴장'은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때 경험하는 긴장으로, 예를 들어 부유층과 빈곤층이 서로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면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긴장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Zhao & Zhang, 2018).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개인은 긴장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데, 높은 수준의 긴장은 자살사고를 높일 수 있다(Zhang,

2019).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경우 타인과 다른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어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느껴지는 성적 소외감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기 상황에서 대처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긴장’은 삶의 위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대처능력이 부족할 때 경험하는 긴장을 말한다(Zhang, 2016). 발달시기 상 청소년은 아직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 및 사회적 압박에 대한 대처 기술이 부족한데,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위축감이 더더욱 대처기술 습득을 부족하게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성애가 규범적인 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낙인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 부족하여 긴장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대처기술 부족으로 인한 긴장은 자살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다(Mueller, James, Abrutyn & Levin, 2015).

3.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유형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맺은 사회적 관계(social network)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추상적 자원으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양하다(Coleman, 1988; Putnam, 2000). 기존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발전시킨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자본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관계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가족, 친한 친구, 가까운 친인척들이 같이 동질성을 가진 집단 내의 관계로 강한 연결과 집단 내의 충성도를 강화하며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상호 간에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지만, 종종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다(Zhong, 2014). 반면,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유대감이 약한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관계로, 가치 있는 정보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새로운 정보나 자원에 노출하도록 만든다. 즉 폭넓은 관계망으로 거시적 수준에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야를 확장시켜 준다. 반면,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열린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서적 지지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정지인, 2016; Williams, 2006).

한편 Williams(2006)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그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들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인지 혹은 실제적인 관계를 통한 오프라인에서 맺어진 관계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개인이 사회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소통방식과는 다를 수 있으며(임종섭, 김진희, 최수연, 원용진, 2014), 자기 개방, 공동체 소속감이나 행복감(김소정, 양은주, 권정혜, 2013; Tidwell & Walther, 2002), 집단에 대한 상호의존성(Etzioni, 1994), 집단 소속감(Reich, 2010), 친밀감(신소연, 이상우, 2012), 대인관계 몰입도 등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배경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2) 사회적 자본과 자살 및 긴장과의 관계

사람들의 결속력 및 연결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한세희, 2017).

Durkheim(1897/2010)의 사회통합이론에서, 사회적 통합은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와 연결되어 있거나 수용된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회적 통합이 높은 사람들은 자살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사회적 통합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제되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끼며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Durkheim, 1897). 사람들과의 긴밀한 연결성, 유대감에 바탕을 둔 사회적 통합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며, 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촉발시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한세희, 2017) 자살사고 완화 및 자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및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긴장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Gächter, Savage & Torgler, 2011). 그런데 본 연구의 관심사인 STS에서도 Zhang & Lester(2008)은 STS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도 사회적 통합과 같은 사회적 및 심리적 조절 요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의 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결속형/연결형 및 온/오프라인)에 따라 그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에서 23세의 청소년 성소수자 320명을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에브리타임, 성소수자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모아폼)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소수자의 기준은 동성애와 양성애(LGB)였다. 이중 불성실하거나 연령 및 성적 지향성이 본 연구의 피험자 모집 기준에 맞지 않는 80명과 불성실한 응답자 14명을 제외한 226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긴장 척도(Psychological Strain Scales: PSS)

심리적 긴장은 Zhang(2014)이 개발한 심리적 긴장 척도(Psychological Strai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긴장 척도의 저자인 Zhang의 승인을 받아 3개 국어가 가능한 석사 3명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우울, 불안, 자살위험성 등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들의 자문을 받아 문항을 보완하였다.

Zhang(2014)이 개발한 심리적 긴장 척도는 총 40문항에 4개의 하위요인(상충되는 가치로부터의 긴장,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긴장, 부족한 대처기술로 인한 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을 위해 KMO(Kaiser Meyer Olkin) 척도(.88)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p < .001$) 자료에 기초할 때, 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다. 요인추출을 위한 최대우도 추정법과 요인회전을 위한 직접 오블리민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긴장의 총 설명량은 40.43%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량은 다음과 같았다: 상충되는 가치로부터의 긴장(7.5%),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24.8%), 상대적 박탈로 인한 긴장(5.3%), 부족한 대처기술로 인한 긴장(2.8%).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3문항과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이중부하를

보이는 문항들(6문항)을 제거하고 총 34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에서 경험하는 긴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각 문항의 예시를 들어보면, '상충되는 가치로부터의 긴장'은 '부모님과 가장 친한 친구들은 성정체성에 대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은 '사회는 나에게 공평하지 않다', '상대적 박탈로 인한 긴장'은 '나는 다른 친구들과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 '부족한 대처기술로 인한 긴장'은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나는 보통 머리가 하얘진다' 등으로 되어 있다.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illiams(2006)가 개발하고 김구(2010)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결속형(bonding) 사회적 자본과 연결형(bridging) 사회적 자본에 대해 각각 10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Cronbach's α 는 .90,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Cronbach's α 는 .91,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 Cronbach's α 는 .84,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 Cronbach's α 는 .88 이었다. 각 문항은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온라인 상에 있다',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오프라인에 있다',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살사고 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Reynolds(1987)가 개발하고 신민섭(1992)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서미순(2005)이 사용한 1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나는 내가 살아있지 않은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살을 할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등이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과 Hayes(2014)가 개발한 PROCESS macro for SPSS v3.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요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셋째,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경우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Hayes(2014)의 PROCESS macro for SPSS v3.4(model 1)를 이용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전체 226명 중 남자는 52명(23.0%), 여자는 174명(77.0%)이었고, 평균 연령은 19.37세였다. 연령별 성적 지향성 분포는 게이 25명(11.1%), 레즈비언 84명(37.2%), 양성애 117명(51.8%)으로 나타났다. 커밍아웃의 유무는 ‘있다’ 147명(65.0%), ‘없다’ 79명(35.0%)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되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2	23.0	커밍아웃 유무	있다	147	65.0
	여자	174	77.0		없다	79	35.0
연령	15세	20	8.8	커밍아웃 나이	11세	1	0.4
	16세	18	8.0		12세	2	0.9
	17세	21	9.3		13세	11	4.9
	18세	26	11.5		14세	16	7.1
	19세	22	9.7		15세	25	11.1
	20세	32	14.2		16세	25	11.1
	21세	28	12.4		17세	18	8.0
	22세	38	16.8		18세	19	8.4
	23세	21	9.3		19세	14	6.2
성적 지향성*	게이	25	11.1	20세	6	2.7	
	레즈비언	84	37.2	21세	7	3.1	
	양성애	117	51.8	22세	3	1.3	
				없다	79	35.0	

* 대상자들이 작성한 성적 지향성 선택 항목에는 ‘기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됨.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인인 긴장은 종속변인인 자살사고($r=.67,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긴장의 한 요인이 증가할 때 자살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긴장의 하위유형인 '상충되는 가치 긴장'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유형인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r=.288, p<.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r=-.251, p<.01$)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r=-.220, p<.01$)은 둘 다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에,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유의한 상관관계 나타나지 않았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유형인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고,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r=.216, p<.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r=-.205, p<.01$)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r=-.198, p<.01$)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 긴장'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유형인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r=.135, p<.05$)과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r=.172, p<.05$)과는 둘 다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r=-.184, p<.01$)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r=-.154, p<.05$)은 둘 다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대처능력 부족 긴장'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유형인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유의하지 않았고,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r=.296, p<.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r=-.157, p<.05$)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r=-.160, p<.05$)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3.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긴장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지 보기 위해 2단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인 사회적 자본은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각각 긴장과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4개 유형의 긴장 중 1개와 조절변인인 4개의 사회적 자본 중

1개를 반복해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예, 상충되는 가치 긴장×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총 16번(4개의 긴장 유형× 4개의 사회적 자본× 자살사고)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2단계의 상호작용항에서 종속변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절효과가 있을 경우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4)의 PROCESS macro for SPSS v3.4(model 1)를 이용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연결형 사회적 자본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온라인 결속형/연결형 사회적 자본에서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결과도 출된 긴장의 각 하위유형과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의 각 하위요인들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서 상충되는 가치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자살사고의 약 13.6%를 설명하였다($\Delta R = .136, p < .001$). 2단계에서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효과($\beta = -.219, t = -3.537, p < .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자살사고의 약 40.7%를 설명하였다($\Delta R = .407, p < .001$). 2단계에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효과($\beta = -.140, t = -2.721, p < .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 상대적 박탈감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상대적 박탈감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자살사고의 약 28.9%를 설명하였다($\Delta R = .289, p < .001$). 2단계에서 상대적 박탈감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효과($\beta = -.137, t = -2.242, p < .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자살사고의 35.5%를 설명하였다($\Delta R=.355$, $p<.001$). 2단계에서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효과($\beta=-.149$, $t=-2.804$,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상충되는 가치 긴장, 이상과 현실에서의 긴장, 상대적 박탈감 긴장,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져 자살사고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1. 긴장(Strain)	-										
1-1. 상충되는 가치 긴장	.715**	-									
1-2.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	.903**	.498**	-								
1-3. 상대적 박탈감 긴장	.741**	.358**	.675**	-							
1-4. 대처능력 부족 긴장	.810**	.453**	.632**	.428**	-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035	-.054	-.058	-.016	.021	-					
2-1.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119	.110	.055	.135*	.105	.669**	-				
2-2.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251**	-.267**	-.205**	-.184**	-.157*	.701**	.100	-			
2-3.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	.288**	.225**	.216**	.172*	.296**	.663**	.630**	.107	-		
2-4.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	-.220**	-.188**	-.198**	-.154*	-.160*	.663**	.047	.651**	.108	-	
3. 자살사고	.670**	.357**	.636**	.530**	.589**	-.056	.070	-.185**	.183**	-.200**	-
M	103.74	23.04	32.02	16.06	32.62	134.23	28.34	37.57	32.80	35.53	52.07
SD	24.147	6.889	9.566	5.533	8.015	25.538	10.428	10.157	8.303	8.949	16.846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결과변수: 자살사고						
		비표준화 계수		β	t	R^2	ΔR^2	ΔF
		B	SE					
1	상충되는 가치 긴장(A)	.809	.158	.331	5.123***	.136	.136	17.543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B)	-.161	.107	-.097	-1.500			
2	A×B	-.057	.016	-.219	-3.537***	.182	.046	16.469
1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A)	1.099	.031	.624	11.847***	.407	.407	76.618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B)	-.095	.087	-.057	-1.090			
2	A×B	-.022	.008	-.140	-2.721**	.426	.019	55.012
1	상대적 박탈감 긴장(A)	1.563	.175	.513	8.935***	.289	.289	45.286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B)	-.003	.093	-.002	-.028			
2	A×B	-0.42	.019	-.137	-2.242*	.305	.016	32.413
1	대처능력 부족 긴장(A)	1.206	.114	.574	10.354***	.349	.355	61.405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B)	-.157	.090	-.095	-1.743			
2	A×B	-.027	.010	-.149	-2.804**	.369	.022	44.81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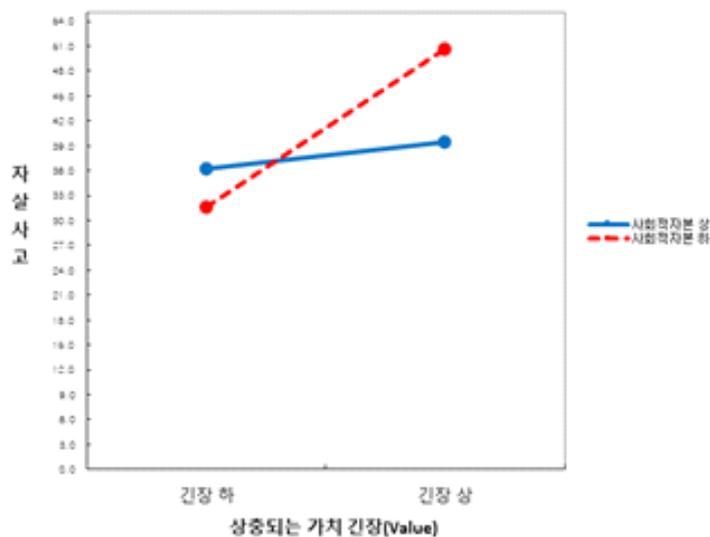


그림 1.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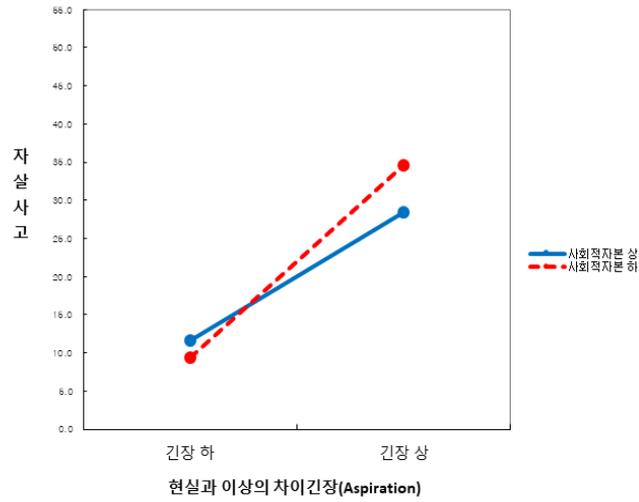


그림 2.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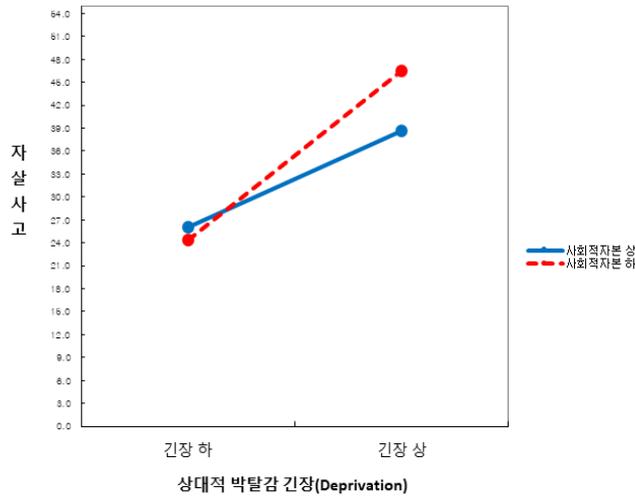


그림 3. 상대적 박탈감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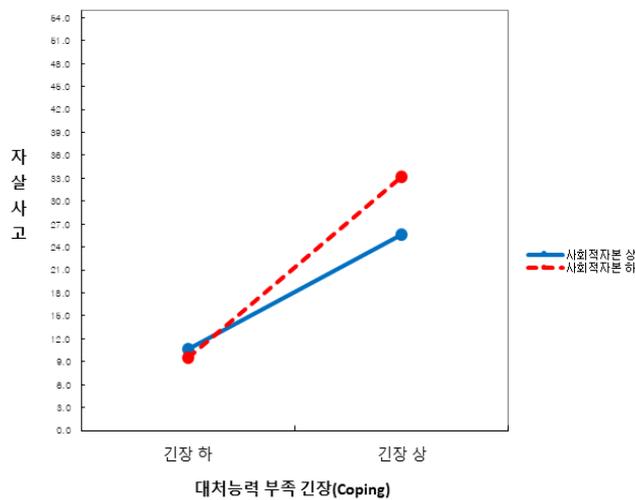


그림 4.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2)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서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자살사고의 약 17%를 설명하였다($\Delta R = .170, p < .001$). 2단계에서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효과($\beta = -.140, t = -2.310, p < .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서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자살사고의 약 35.8%를 설명하였다($\Delta R = .358, p < .001$). 2단계에서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효과($\beta = -.109, t = -2.006, p < .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성소수자의 상충되는 가치 긴장, 대처능력 부족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서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유의하게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의 긴장,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아래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결과변수: 자살사고						
		비표준화계수		β	t	R^2	ΔR^2	ΔF
		B	SE					
1	상충되는 가치 긴장(A)	.753	.128	.368	5.899***	.162	.170	22.791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B)	.229	.118	-.122	-.1945*			
2	A×B	-.032	.014	-.140	-2.310*	.178	.019	17.268
1	대처능력 부족 긴장(A)	1.200	.114	.571	10.506***	.358	.358	62.160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B)	-.205	.102	-1.09	-2.006*			
2	A×B	-.027	.011	-.130	-2.438*	.375	.017	44.34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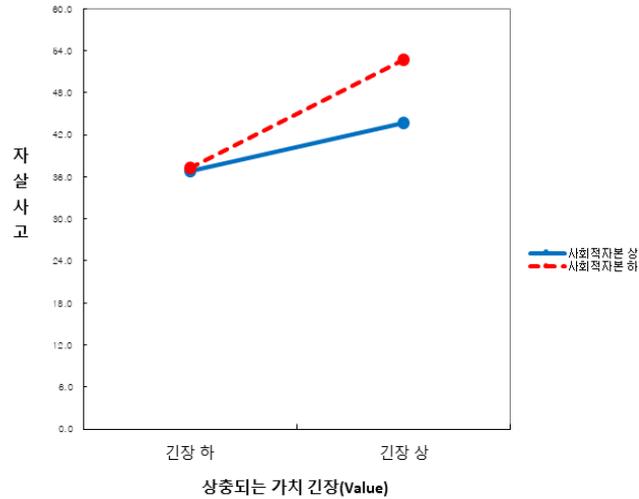


그림 5.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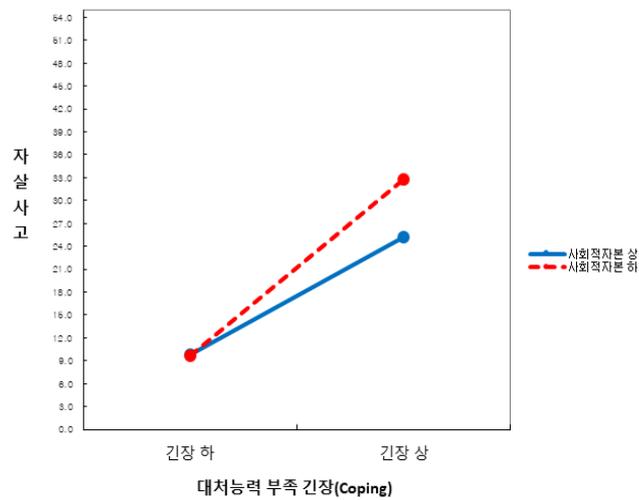


그림 6. 상충되는 가치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적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온라인/오프라인 및 결속형/연결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심리적 긴장은 ‘상충되는 가치’ 긴장,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 ‘상대적 박탈감’ 긴장, ‘대처능력 부족’ 긴장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심리적 긴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긴장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적 긴장 수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긴장 상황에 대해서 모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조수진(2007)의 연구에서도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자살률 사이에 부적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오프라인 형태일 때 자살사고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자기 인식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정체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공유하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손소연, 이지하(2016)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회성 만남이나 입·탈퇴가 쉽기 때문에 책임감과 애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 탓에 온라인상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실제로 직접적인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없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주는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온라인의 특성상 성소수자로서의 심리적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정도로는 정서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이성애 청소년 및 청년층과 비교했을 때 성소수자 청소년 및 청년층이 매일 45분 정도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 McInroy, 2014). 이런 청소년기 성소수자의 발달상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은 이들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들의 부정적 정서 완화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손소연, 이지하(2016)의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소수자의 경험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상대적으로 내향적인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함께 볼 때, 활동적 성향의 성소수자들에 비해 내향적인 성소수자들의 경우 온라인에서 사회적 자본을 취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보다 직접적인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노출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내향적인 경향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심리적 긴장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심리적 긴장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상충되는 가치’ 긴장, ‘대처능력 부족’ 긴장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 ‘상대적 박탈감’ 긴장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온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정서적 지원은 약할 수 있으나, 다양한 대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가치있는 정보나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제공하는 정서적으로 강한 연결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자원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긴장이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결형과 결속형 모두에서, 온라인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으나 오프라인의 경우에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결속형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온라인 연결형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들에서 온라인에서는 혼란을 주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이다정, 이용정, 2019)고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지나치게 다양한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해 그 정보나 자원이 실제로 현실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인지를 선별하여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현실적인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에도 익명정보보다는 실제적 만남을 통해 얻어질 때 유효함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에서도 긴장의 하위 요인 중 ‘상충되는 가치’ 긴장, ‘대처능력 부족’ 긴장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 ‘상대적 박탈감’ 긴장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상충되는 가치’로 인한 긴장, 즉 자신의 성적 지향성 가치와 사회의 기대 가치(이성애 우월주의)에서 나타나는 긴장 수준이 높더라도, 또한 ‘대처능력 부족’ 긴장, 즉 삶의 위기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긴장을 높게 경험하더라도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자살사고가 적음을 말한다. 그러나 반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 긴장, ‘상대적 박탈감’ 긴장에서는 오프라인이라 할지라도 연결형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오프라인 연결형을 통해서 상충되는 상반된 가치로 인한 자기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자원을 얻을 수 있으나, 자신의 이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실’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무력감이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유효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심리적 긴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형태의 자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 결속형 자본이 다양한 긴장 요인에 대해서 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오프라인 연결형 자본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통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가치에 대한 수용폭을 넓히거나 정서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와 자원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개인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내적 자기 갈등 완화와 정서적 대처방법의 증진과는 달리, 단순히 정보나 자원을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오프라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회, 즉 현실과의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까지 완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도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심리적 긴장과 자살사고 간의 부정적 연결을 약화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오프라인 형태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실과의 괴리감 및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부정적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결속형, 즉 보다 강한 정서적 유대에 바탕을 둔 관계 구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선행 연구들에서 온라인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발전 또는 유지되게 하는 요인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박성복, 2006), 인간관계 형성과 의견 교환에 대한 욕구(황영현, 조용현, 2005), 유대감 및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빈도, 반응성과 놀이성(즐거움)에 대한 인식 정도(김민정, 최윤정, 2012) 등이 밝혀져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오프라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호 간에 안전감과 신뢰,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생필품과 식사 및 의류, 주거 지원, 놀이시설 제공, 교육 지원과 함께 상담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땡땡’과 같은 지원단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https://ddingdong.kr/>). 이런 단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이들에게 안전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오프라인 만남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연결형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중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은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및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긴장 완화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사회적 구조 및 인식 또한 개선해 나아가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살의 위험성이 높지만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연구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자살 예방 전략 수립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일반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했던 Zhang의 자살의 긴장 이론을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확대하여 적용, 검증하였다는데 또다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자살의 긴장 이론에서 심리적 긴장을 측정하는 Zhang(2016)의 'Psychological Strain Scale(PSS)'을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연구 대상에 맞게 변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향후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대상자 특성으로 인해 한정된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서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는 것, 둘째, 개인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기 어려운 특성상 청소년 성소수자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설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 강병철, 김지혜 (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41(5), 930-941.
- 권미영 (2020). 고등학생의 성적지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 34(1), 87-98. doi:10.5932/jkphn.2020.34.1.87
- 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현 (2013).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가 사회자본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30(2), 5-32.
- 김구 (2010).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의 영향성 탐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7(4), 5-44.
- 김민정, 최윤정 (2012). 스마트폰을 통한 트위터 이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6(1), 43-82.
- 김소정, 양은주, 권정혜 (2013).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이 공동체 소속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의 비교: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의 비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4), 5-42.
-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합의적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doi:10.20406/kjcs.2017.11.23.4.605
- 김현정, 황의갑 (2011).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5(1), 75-110.
- 나영정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남궁미, 박정은 (2020).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69-1498. doi:10.23844/kjcp.2020.08.32.3.1469
- 박민영 (2020). **일상적 긴장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일반긴장이론을 통하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복 (2006).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애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6(3), 179-203.
- 박수진 (2018). **성소수자의 소수자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립의 매개효과와 자기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미순 (2005).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소연, 이지하 (2016).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 Giorgi 현상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8(2), 233-256. doi:10.20970/kasw.2016.68.2.010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소연, 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191-232.
- 유창민 (2017). 우리나라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회**, 59, 25-58. doi:10.24300/JKSC.2017.09.59.25
- 유창민, 강상경 (2015). 청소년 자살생각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46, 24-54. doi:10.17997/SWRY.46.1.2
- 윤가현 (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다정, 이용정 (2019).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관한 지식검색 커뮤니티 정보탐색행태. **한국정보관리학회**, 36(4), 161-181. doi:10.3743/KOSIM.2019.36.4.161
- 이지영, 박소라, 나은영, 김은미 (2014). 한국과 호주 청소년들의 SNS 이용과 온라인 사회적 자본. **언론문화연구**, 21, 1-33.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보건사회학회**, 36, 43-79.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종섭, 김진희, 최수연, 원용진 (2014). 온라인 공동체 규범인식과 몰입이 운영방식 만족, 지각된 가치, 오프라인 모임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 **한국언론학보**, 58(5), 153-179.
- 장지윤 (2016).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인 (2016).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과 온라인 사회적 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진 (2007). **사회 자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재홍 (2017).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175-215. doi:10.24159/joec.2017.23.1.175
- 한세희 (2017). **사회자본의 자살예방효과: 사회적 환경의 역할**. 국민대학교. https://www.krm.or.kr/krmnts/search/detailview/text.html?metaDataId=4b76f6df7e406a25017e43d2fec4090f&m201_id=&local_id=&dbGubun=FRBR&m310_arti_id=&category=

- 황연현, 조용현 (2005). 온라인 공동체 구성원이 지각하는 기능이 공동체와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7(4), 141-159.
- Bargh, J. A., & McKenna, K. Y.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73-590. doi:10.1146/annurev.psych.55.090902.141922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241-58.
- Chong, E. S., Zhang, Y., Mak, W. W., & Pang, I. H. (2015). Social media as social capital of LGB individuals in Hong Kong: Its relations with group membership, stigma, and mental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5(1-2), 228-238. doi:10.1007/s10464-014-9699-2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doi:10.1086/228943
- Craig, S. L., & McInroy, L. (2014). You can form a part of yourself online: The Influence of new media on identity development and coming out for LGBTQ youth.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18(1), 95-109. doi:10.1080/19359705.2013.777007
- Duberstein, P. R., Conwell, Y., Conner, K. R., Eberly, S., Evinger, J. S., & Caine, E. D. (2004). Poor social integration and suicide: Fact or artifact? A case-control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34(7), 1331-1337. doi:10.1017/s0033291704002600
- Durkheim, E. (2010). **에밀 뒤르케임의 자살론** (황보중우 역). 파주: 청아출판사. (원저 1897년 출판)
- Elze, D. E. (2002). Risk factors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gays, lesbian, and bisexual adolescents. *Social Work Research*, 26(2), 89-99. doi:10.1093/swr/26.2.89
- Etzioni, A. (1993). *The spirit of community: the reinvention of american society*. Touchstone.
- Ferlander, S. (2007). The importance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for health. *Acta Sociologica*, 50(2), 115-128.
- Gächter, M., Savage, D. A., & Torgler, B.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train and social capital.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4(3), 515-540. doi:10.1108/13639511111157546
-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 (2014). The 2013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Key findings on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Executive Summary. In

-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 (GLSEN).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 (GLSEN).
- Gibson, P. (1989), Gay male and lesbian youth suicid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Youth Suicide (Report of the Secretary's Task Force on Youth Suicide, Vol, 3)*.
- Hayes, A. F. (2014).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Guilford Publications.
- Helliwell, J., &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doi:10.1098/rstb.2004.1522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King, M., Semlyen, J., Tai, S. S., Killaspy, H., Osborn, D., Popelyuk, D., & Nazareth, I. (2008). A systematic review of mental disorder, suicide, and deliberate self harm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BMC Psychiatry, 8*(1), 1-17. doi:10.1186/1471-244X-8-70
- Kourany, R. F. C. (1987). "Suicide among homosexual adolesc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13*(4), 111-117. doi:10.1300/J082v13n04_07
- Krysiak, G. I. (1987). "A very silent and gay minority". *The School counselor, 34*(4), 304-307.
- Langille, D. B., Asbridge, M., Kisely, S., & Rasic, D. (2011). Suicidal behaviours in adolescents in Nova Scotia, Canada: protective associations with measures of social capital.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10), 1549-1555. doi:10.1007/s00127-011-0461-x
- Ledbetter, A. M., Mazer, J. P., DeGroot, J. M., Meyer, K. R., Mao, Y., & Swafford, B. (2011). Attitudes toward online social connection and self-disclosure as predictors of Facebook communication and relational closeness. *Communication Research, 38*(1), 27-53. doi:10.1177/0093650210365537
- Lee, D. Y., Kim, S. H., Woo, S. Y., Yoon, B. K., & Choi, D. (2016). Associations of health-risk behaviors and health cognition with sexual orientation among adolescents in school. *medicine, 95*(21), e3746. doi:10.1097/MD.0000000000003746
- Liu, R. T., Walsh, R. F., Sheehan, A. E., Cheek, S. M., & Carter, S. M. (2020).

-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youth: 1995-2017. *Pediatrics*, 145(3). doi:10.1542/peds.2019-2221
- Liu, Y., Zhang, J., Hennessy, D. A., Zhao, S., & Ji, H. (2019). Psychological strains,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edical and non-medical staff in urban China. *J Affect Disorder*, 245, 22-27. doi:10.1016/j.jad.2018.10.111
- Mueller, A. S., James, W., Abrutyn, S., & Levin, M. L. (2015). Suicide Ideation and Bullying Among US Adolescents: Examining the Intersection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and Race/Ethnic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5), 980-985. doi:10.2105/AJPH.2014.302391
- Proctor, C. D., Groze, V. K. (1994).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Social Work*, 39(5), 504-513. doi:10.1093/sw/39.5.504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eich, S. M. (2010).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n myspace and facebook: A mixed-methods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6), 688-705. doi:10.1002/jcop.20389
- Reynolds, W. M., & Mazza, J. J. (1999). Assessment of Suicidal Ideation in Inner-City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JR. *School Psychology Review*, 28(1), 17-30. doi:10.1080/02796015.1999.12085945
- Russell, S. T., & Joyner, K. (2001). Adolescent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Evidence from a 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8), 1276-1280. doi:10.2105/ajph.91.8.1276
- Song, Y., Bai, W., & Wang, M., Liu, X., Zhang, L., Yu, W., ... Kou, C.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strain and suicid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 mental health survey in Jilin Province, Northeast Chin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59, 195-200. doi:10.1016/j.jad.2019.08.042
- Stack, S., & Kposowa, A. J. (201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uicide: A review and analysis of marital and religious integration. doi:10.1002/9781118903223.ch14
- Tidwell, L. C., & Walther, J. B. (2002).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ffects on disclosure, impressions, and interpersonal evaluations: Getting to know one another a bit at a tim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3), 317-348. doi:10.1111/j.1468-2958.2002.tb00811.x

-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2), 593-628. doi:10.1111/j.1083-6101.2006.00029.x
- Yoo, C. (2018).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onding Social Capital: Risk and Protective Role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Specific Situations in South Korean Adolescents. *Child Indicators Research, 11*(1), 245-261. doi:10.1007/s12187-016-9433-8
- Yoo, C., Khang, S. K., & Kim, H. M. (2017).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Asian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7*(1), 1-12. doi:10.1080/02185385.2016.1261732
- Zhang, J. (2016). From psychological strain to disconnectedness: A two-factor model theory of suicide.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7*(3), 169-175. doi:10.1027/0227-5910/a000420
- Zhang, J., & Lester, D. (2008). Psychological Tensions Found in Suicide Notes: A Test for the Strain Theory of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2*(1), 67-73. doi:10.1080/13811110701800962
- Zhang, J., Liu, Y., & Sun, L. (2017). Psychological strain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ison between Chinese and US college students. *Psychiatry research, 255*, 256-262. doi:10.1016/j.psychres.2017.05.046
- Zhang, J., & Lyu, J. (2014). Reliability, validity and preliminary hypothesis tests for the English version of the Psychological Strain Scales (PS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64*, 69-75. doi:10.1016/j.jad.2014.04.011
- Zhang, J., Wiczorek, W. F., Conwell, Y., & Tu, X. M. (2011). Psychological strains and youth suicide in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72*(12), 2003-2010. doi:10.1016/j.socscimed.2011.03.048
- Zhang, J. (2019) The strain theory of suicide. *Journal of Pacific Rim Psychology, 13*, E27. doi:10.1017/prp.2019.19
- Zhao, S., & Zhang, J. (2018).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psychological strains in college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42*(4), 914-928. doi:10.1007/s11013-018-9591-x
- Zhong, Z. J. (2014). Civic engagement among educated Chinese youth: The role of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Computers & Education, 75*, 263-273. doi:10.1016/j.compedu.2014.03.005

ABSTRACT

Social capital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i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sexual minority youth

Lee, Gyuyeon* · Hahn, Youngkyoung** · Bae, Sungman***

As adolescent sexual minorities develop their self-identity, they face social values and pressures as a social minor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these LGBT youth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train' and suicidal ideation. To this end, based on Zhang's (2016) 'The Strain Theory of Suicide(STS)', we verified whether 'social capital', which is an expanded concept of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in which an individual feels connected or accepted by a group or society, has a moderating effect. In addition, social capital was divided into bonding/bridging and online/offline types and analyzed to see if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each type.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online survey of 320 sexual minority youth aged 15 to 23 across the count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strain experienced by sexual minority youth was positive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social capital (offline bonding social capital, offline bridging social capital)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was found on the association between strains (value strain, aspiration strain, deprivation strain, and coping strain) and suicidal ide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capital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effects of tensions among sexual minorities on youth suicidal ideation. However, in both linking social capital and bonding social capital, the online form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and only the offline form showed a significant result. In summary, from a social capital perspective, offline social capital rather than online social capital are needed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sychological strain on suicidal ideation in youth sexual minorit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offline bonding social capital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various strain factors. Along with the abov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described.

Key Words: sexual minority youth, LGB, strain, suicide ideation, social capital

* Dankook University

** Seoul Psychological Support Center-Northeast Branch, Duksung Women's University

*** Dankook University